

목포권

신안 '백년초 특산주' 개발 본격화

과일주·발효주·침출주 시음회

"군대표 명품주로 농가 소득 증대"

신안군이 토종 백년초(百年草)를 이용한 특산주(酒)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사진> 신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인수)는 최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백년초를 이용한 특산주 개발 운영보고회를 가졌다.

신안군은 지난해 7월 백년초 특산주를 개발하기 위해 순천대 김응두 교수팀에 용역을 의뢰했다.

이날 운영보고회에서는 백년초 특산주의 개발방향, 타 지역 특산주와 차별화 전략 등에 관한 토론이 이어 토종 백년초 과일주와 발효주, 침출주 시음회가 열렸다.

선인장의 일종인 백년초는 부채 모양을 여러 개 이어 붙인 것처럼 생겨 부채선인장, 손바닥 선인장이라고도 불린다.



특히 신안 토종 백년초는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게르마늄 토양에서 재배, 무농약인증을 받아 소비자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박진하 신안 부군수는 "백년초 특산주를 신안군을 대표하는 명품으로 개발해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시원한 질주... 목포 전국 모터보트대회

이 경주 등 3종목에 1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기량을 겨뤘다.

지난 21일 목포 평화광장 해안 특설경기장에서 열린 '제 1회 전남도지사배 전국 모터보트대회' 참가자들이 바다를 가르며 질주하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경주용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 3종목에 1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기량을 겨뤘다.

/위취량기자 jrvi@kwangju.co.kr

목포 담배소비세 징수 크게 늘어

전년보다 12% 증가 68억 ... 지방재정 확충 한 몫

올들어 목포시 담배소비세 징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까지 징수한 담배소비세는 68억7천1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 60억4천여만원에 비해 12%가 증가했다.

이처럼 담배소비세 징수가 증가한 것은 담배값 인상과 새로운 흡연연구가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6월 말 현재 목포지역 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대비 125만9천여갑이 증가한 720만965갑을 기록했다.

목포시의 올해 담배소비세 징수목표는 152억원으로 하반기에 담배소비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비추어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담배소비세액의 50%를 과세하는 지방교육세도 지난해보다 4억1천462만원이 증가한 34억3천500만원

으로 집계됐다.

올 현재 목포시에서 걷어들이는 지방세는 1천100억원대로 담배소비세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한 몫하고 있는 셈이다.

2천500원 담배 한갑을 구입했을 경우 지방세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담배소비세액의 50%인 321원이

/목포=이성진기자 sslee@



백련축제 대비 국토청결운동

무안군 공무원과 주민 등 500여명은 오는 8월4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제 11회 무안백련축제에 대비, 대대적인 국토대청결운동을 벌여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 5t을 수거했다.

무안군 공무원과 주민 등 500여명은 오는 8월4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제 11회 무안백련축제에 대비, 대대적인 국토대청결운동을 벌여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 5t을 수거했다.

무안군 공무원과 주민 등 500여명은 오는 8월4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제 11회 무안백련축제에 대비, 대대적인 국토대청결운동을 벌여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 5t을 수거했다.

임보이스·CIC 코리아 콜센터

목포시, 유치 나서

목포시가 본격적인 콜센터 유치에 나섰다.

목포시는 최근 전남기구를 설치하고 임보이스와 CIC 코리아 콜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 2곳, 순천과 여수에 각각 1곳 등 모두 4곳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임보이스는 오는 9월 추가 콜센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또 임보이스와 CIC 코리아는 현재 전남지역에 콜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며 서울 4곳, 부산 1곳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우이도·관매도에 숙박형 체험 프로그램

국립공원 다도해사무소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소장 김응두)가 2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숙박형 체험 프로그램인 '돌피니를 따라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신안군 우이도와 진도군 관매도에서 개인 또는 가족단위 탐방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 동양 최대의 모래언덕인 '우이도 모래산 비밀 알아보기', 선박 승선체험, 모래조각 만들기

해변에서 식수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우이도 도리산(관매도는 관매야영장) 일원을 탐사하는 동안 안 어둠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과 가벼운 레크리에이션, 그룹별 임무 수행 등 야간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예약 및 문의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홈페이지(http://dadohae.knps.or.kr)나 전화 (061-284-9116)로 가능하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2012년까지 축산물 50% 친환경으로

가축 분뇨 자원화율도 70%로 향상

진도군 '5개년 종합 계획'

사육 환경개선 150억 투입

진도군이 오는 2012년까지 전체 축산물 생산량의 50%를 친환경 축산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 축산 5개년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5개년 종합 계획은 가축사육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친환경축산물 생산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이를위해 사육환경 개선 등 6개 분야 22개 사업에 15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1단계로 농가교육과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2단계 생산

기반 확대 ▲3단계 친환경축산물 확대 ▲4단계 전염병예방 및 위생관리 ▲5단계 틈새축산 육성 ▲6단계 축산물브랜드 육성 등 단계별 사업이 추진된다.

군은 5개년 계획이 완료되는 2012년에 전체 축산물의 50%를 친환경 축산물로 생산하고 가축분뇨 자원화율도 70%로 올릴 계획이다.

진도군 축산진흥담당은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다"며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브랜드 육성을 통해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무안 하수처리장 부지 매각 합의

郡-입주업체, 수익금 농공단지 재투자

일로농공단지내 하수처리장 부지 매각을 둘러싼 무안군과 입주업체간 논란이 해결됐다.

<본보 7월19일자 13면 보도> 무안군은 지난 20일 당초 계획대로 하수처리장 시설부지를 매각하고 수익금은 노후시설 확충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재투자비로 사용키로 입주업체 대표자들과 합의했다.

일로농공단지에는 지난 1992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부지 4천661㎡

가 조성됐으나 대부분 입주업체들이 기계부품 조립 등 폐수와 무관한 업종이어서 지금까지 공터로 방치돼 왔다.

특히 특정인이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폐자재, 쓰레기가 무단 방류돼 미관을 해치는 등 민원이 제기돼 왔다.

무안군은 이에따라 설명회 등을 거쳐 지난달 29일 선박부품업체인 D 산업과 조성원가인 1억 9천400만 원에 매각 계약을 맺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Table with 3 columns: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Rows include population, area, and other statistics for various regions.

대인동삼일부동산 -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입체인 저회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무등공인중개사 - 건물투자, 땅투자(상부지구), 모텔매매, 임야(농장), 공장, 창고 및 기타.

정우부동산 - 건물매매, 토지매매, 시외내송지.

첨단월계공인중개사 - ★급매매★, 첨단빌딩 임대, 첨단중심 상임매매, 첨단원로 건물매매, 첨단인근노지급매매.

국민공인중개사 - 건물, 땅, 주유소 전문중개, 공장매매, 이장동 고급전원주택, 시외 고급주택.

대지부동산 - 임야, 목장, 아파트 전원주택 전문.

특급상가 매매·임대 - 현대후문 인근 2천사제 아파트 상가 2층 학원 60평, 현대후문 70평 노래방(도유미 없는 청정지역), 노래방 요약 손익계산(최근 3개월), 현대후문 대로변 비로 건너편 1층 50평 (다지76평), 현대후문 사거리 코너 식당 1층 50평.